

“30년...나를 끌어온 건 음악과 광주”

‘김원중 30주년 콘서트’ 내일 D1센터

화면 속 이십대의 풋풋한 그가 노래를 부른다. 영상을 보던 사람들 사이에서 잠시 웃음이 터졌다. 30년이 지난 지금과는 다른 맑은 목소리에 옛된 얼굴이 순수해 보인다. 옆에 선 이는 가수 주현미. “과도가 부서지는 바위섬, 인적 없는 그곳에” 그가 부르는 노래 ‘바위섬’이다. 영상은 1985년 신인상 선발 모습. 그해 신인상은 ‘바람 바람 바람’의 김범룡이 가져갔다.

가수 김원중이 노래 인생 30년을 맞았다. “만년 이상 ‘그 노래’를 부르면서 순수함도 있었고, 억울함도, 아픔도, 슬픔도, 자랑스러움도 있었다”는 ‘바위섬’으로 데뷔한 게 1985년이다.

그가 데뷔 30주년 기념 콘서트 ‘WITH 광주’(11일 오후 8시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을 연다. 이번 콘서트는 ‘광주의 음악 상징 김원중과 광주가 만나 눈빛과 가슴을 나누자’며 시민들이 제안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공연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올해 3월 30주년을 맞아 6집 앨범 ‘걸어온 길, 가야할 길’을 낸 김씨는 지인들과 소박하게 기념 콘서트를 준비할 계획이었다. 소문을 들은 많은 이들이 콘서트를 아예 광주 시민이 함께하는 축제로 만들자는 제안을 했고, 8월 ‘김원중 데뷔 30년 기념 공연을 만드는 100인 위원회’(현재 250여명 참여)가 결성됐다. 이계양 YMCA 이사장 등 4명이 공동위원장을, 강위원씨가 운영위원장을 맡았고 위원들은 공연장 섭외부터 티켓 판매, 시민과 함께하는 뒷풀이 맥주파티까지 기획했다.

“저에게 광주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제가 광주의 자랑분을 먹고 자랑

100인 위원회 헌정...시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100석에 세월호 유족·오월어머니회 등 초청



가수 김원중(가운데)씨가 11일 열리는 데뷔 30주년 기념 콘서트를 앞두고 이계양 준비위원장(왼쪽), 강위원 운영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합니다. 다른 지역에 공연 가면 꼭 ‘광주에서 온 김원중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광주는 언제나 자랑이었습니다. 광주는 정말 멋진 도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꼭 그 대상이 돼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예술가를 위해 시민들이 콘서트를 기획해 주는 도시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큰 선물”을 받은 김씨는 “행복하고,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다.

이번 콘서트는 3부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바위섬’을 시작으로 ‘내 나이 48’,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광주천’, ‘나는 바이크 타고 시베리아에 간다’ 등을 부른다. 이어 오랜 친구 안치환이 우정 출연,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바람의 영혼’ 등을 선사한다.

2부에서는 ‘달이 예쁘다’, ‘옛 산동교에서 마지를 기다리다’,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새 어디 있느냐’, 그리고 ‘직녀에게’를 부른다. 마지막 3부 ‘위드 광주’는 김대중센터 야외광장에서 열리는 맥주파티다.

주최측은 100석을 ‘with 광주’식으로 명명하고 청년, 세월호 유족, 근로정신대 할머니, 미혼모, 장애인, 오월어머니회 회원 등을 초청했다.

“광주는 나에게 늘 자랑과 금지였습니다. 그런 광주를 만들어주시는 시민 여러분에 감사드립니다. 행여 조금이라도 서로 갈라진 마음이 있었다면 이번 공연을 통해 위로 받고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노래가 뭘지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 확실한 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더 노래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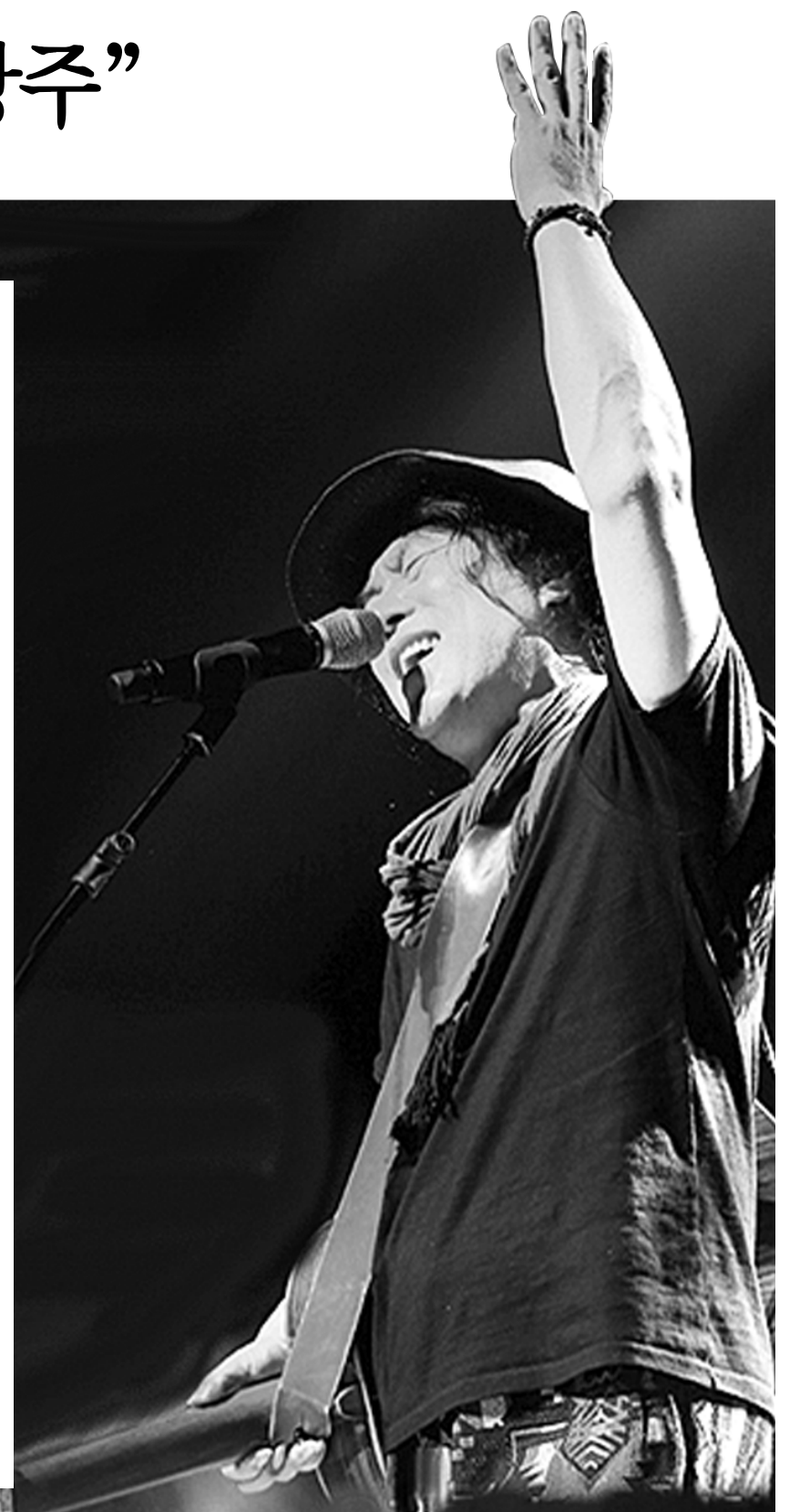
30년 노래 인생 중 기억에 나는 게 몇 가지였다.

“처음엔 5·18을 경험한 평범한 대학생이였고, 사회의식도 별로 없고, 공부도 덜 돼 있고. 한데, 노래가 나를 끌어온 것 같아요. 업훅했던 시절, 처음 거리로 나가 총장로 골목에서 노래할 때 시민들이 자연스레 바리케이트를 쳐주던 기억이 납니다. 북한 천지 공연이 폭풍우 때문에 취소됐을 때 너무 아쉬워 무작정 뛰어올라가 홀로 ‘직녀에게’를 부르자 거짓말처럼 구름이 걷히던 일도 생각나구요.”

외로웠던 광주가 ‘5·18 전국화’를 외칠 때 전국 뮤지션들과 금남로 거리에서 진행했던 ‘금남로 추모 거리 공연’, 공연실황 테이프가 1000개 넘게 팔렸던 전교조 해직교사 후원 합동공연, 트럭을 무대로 개조해 49일간 49개 도시에서 공연을 펼쳤던 ‘잘 가라 지역 감정’ 등도 잊지 못한다. 또 지난 2003년 시작해 지금도 매달 한 차례 열고 있는 ‘북녘 동포를 위한 빵만드는 공연-김원중의 달거리’는 그와 뗄 수 없는 무대다.

“이번 공연은 김원중의 노래와 철학과 역사에 대한 애정을 가진 이들이 꾸민 행사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콘서트로 광주공동체를 재현해 보고 싶습니다. 그의 음악과 공연을 통해 광주가 한 판 대동 난장, 시민 축제를 만들어보자는 겁니다. 이날은 ‘광주가 만나는 날’입니다.”(강위원)

티켓 가격 1만원, 9만 9000원, 7만 7000원. 구매자에게는 김원중 6집을 증정한다. 문의 062-673-1011. /김미은기자 mekim@



사할린 적시는 남도 국악

임방울국악제 수상단 14~16일 러시아 공연

13일 빛고을노인타운 사전 공연

(사)임방울국악진흥회(이사장 김중재)가 러시아 사할린 동포들을 찾아 남도 전통 음악·미술·맛을 소개한다.

이번 행사는 한·러 수교 26주년 기념 사할린 한·러 우호축제를 맞아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린다. 3만여 동포와 교민들에게 향수를 달래주고, 현지인들에게는 한국 전통국악예술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진흥회는 사할린 방문에 앞서 13일 오후 1시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공연장에서 관객, 문화시민, 외국인 등 1000여 명을 초

청, 위안 공연을 개최한다. 이어 15일에는 사할린 약짜브리극장에서 황명희 주 블라디보스톡 대한민국 총영사관 유즈노 사할린스크 출장소장, 사마리아고 사할린주 문화부장관, 동포, 현지인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명나는 무대가 펼쳐진다.

공연단은 대통령상 수상자 2명, 국회의장상 수상팀(농악) 4명, 국무총리상 2명 등 20명으로 구성, 풍물만굿, 판소리속대머리(사랑), 기악연주, 태평무, 가야금병창, 부채춤, 남도민요(사할린공연팀, 소고춤, 판굿)등을 선사할 예정이다.

한국화·강진정자 전시회도 연다. 지역 문



지나해 열린 대통령상 수상자 공연.

《임방울국악진흥회 제공》

인화 대가 금분 박행보 화백을 비롯해 장현 박중희, 임농 하철경, 월봉 조동희 등의 문인화·서예 작품 30여점을 선보인다. 러시아 사할린주립미술관에는 강진 상형정자, 상감정자 등 15점을 기증해 상설 전시한다.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는 15일 광주

김지명인 관은주씨가 참여한 가운데 한국 전통김치를 소개하고 담그기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배추김치, 무김치, 러시아 사람 입맛에 맞는 백김치 등을 사할린 동포와 한인문화센터에 기증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클래식에 물드는 가을 밤

내일 문예회관 광주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광주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가 11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 객원지휘자로는 과천필과 청주시향 상임지휘자를 역임하고 충남대 관현악과 교수로 재직중인 조규진이 함께한다.

레퍼토리는 ‘편곡’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곡들로 꾸렸다.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은 작곡가가 건축설계자이자 화가였던 친구 하르트만의 유작 전시회를 보고 피아노곡으로 만든 작품이다. 전람회에 전시된 열개의 작품

을 모티브로 한 이 곡은 수많은 작곡가가 풍성한 관현악곡으로 편곡했다. 이번 무대에서 라벨 버전을 선보인다.

비올리스트 김상진이 함께하는 차이코프스키의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 협연무대도 마련된다. 당초 첼로를 위해 작곡된 작품으로 이번 공연에서는 비올라 음색으로 만나볼 수 있다. 세종 솔로이스츠, MIK양상을 등에서 활동한 그는 현재 연세대 교수로 재직중이다. 그밖에 베버의 ‘무도회의 권유’도 들려준다. 티켓 가격 3만원~1만원. 문의 062-524-5086. /김미은기자 mekim@

대한민국 모두가 ★몸신이 되는 그 날까지!

나는 몸신이 다

매주 수요일 밤 11시

이용식 엄영란 조민희 변우민 MC/정은아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해남 영암 진도 장흥

스카이라이프 13

IPTV 18

꿈을 담은 캔버스 채널A

www.ichannel.a.com